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㉓ 경기도 파주 심학산 약천사 생강나무

겨울눈 같은 소원 하나 비밀로 안는다


생강나무 사이로 보이는 남북통일 약사여래대불과 지장보전.

잎눈과 꽃눈 다른 생강나무 동정 포인트는 '잎'
obtusiloba, 잎끝이 동그스름하고 얕게 갈라짐
잎 비비고 가지 꺾으면 생강냄새 나 '생강나무'

"부귀영화는 한바탕 춘몽(春夢)이요, 백년간 탐한 물건도 하루아침에 티끌이 됩니다. 팔만사천의 번뇌망상을 다스려 주는 약은 부처님 법뿐입니다."

2008년 10월 19일 약천사 남북통일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에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지관 스님의 법문이라는데, 이유는 그해 유독 심했던 연예인들의 자살 때문이란다. 그 자리에서 "육신이 아프면 약방에 가면 그만이지만, 법신이 병들면 부처님이 45년간 설하신 법문이 가장 위대한 약이 될 것"이라며 불법에 귀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는데, 높이 13m의 우람한 청동대불 앞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을 보면서 악착스레 과거의 말을 연결시키는 건 무슨 심정일까?

소원을 잘 이루어준다는 약천사에서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복일까, 사업 성공일까, 합격일까, 건강일까, 출세일까? 아무리 봐도 읍소할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부처의 법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총명함을 달라고 말이다.

"[064]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이를 만난다 해도 /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는 것처럼 /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고 가까이 해도 /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065] 총명한 이가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 마치 혀가 음식 맛을 아는 것처럼 / 비록 잠깐 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 곧 도의 깊은 뜻 깨닫게 된다."

〈법구경〉 우암품(愚闇品)에 나오는 글이다. 부처의 말을 알아듣는 귀와 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법, 더불어 부처의 마지막 유훈인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의 법을 등불로 삼으면 되느니라"를 명심하면 만사형통인 법, 하지만 그 길이 어디 쉬운가?

그래서 소박한 대웅전 앞에서 나무보다 큰 부처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노랗게 단풍 든 한두 잎 덩그러니 매달고 이미 늦여름부터 새 잎과 새 꽃을 비밀로 안고 있는 생강나무에 눈길을 준다. 가지 끝에 네다섯 개의 눈비늘조각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잎눈과 그 아래에서 자루 없이 가지에 딱 붙어 두세 개의 눈비늘조각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꽃눈이 훌쩍 겨울을 넘어 봄기운을 주는 것 같지만, 찬바람에 휙 이는 낙엽을 보니 홀연 쓸쓸해 계단을 내려간다.

침엽수 말고 낙엽수들을 겨울에 보면 무슨 나무인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가지에 여러 모양으로 염주알처럼 붙어 있는 겨울눈을 유심히 보면 어느 정도 동정을 해낼 수 있다. 겨울눈은 영어로 winter bud 즉 겨울을 나는 싹인데, 잘라 보면 잎과 꽃이 겹겹이 포개져 혹한을 무사히 견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잎눈과 꽃눈이 명확히 다른 생강나무를 동정하는 포인트는 잎이다. 생강나무 종소명이 obtusiloba인데, '잎끝이 동그스름하고 얕게 갈라진다'는 뜻이다. 잎을 보면 가지에 서로 어긋나는 잎의 윗부분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모양이 산(山)자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트 모양의 잎도 함께 달려 있다. 아래 잎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잎이 갈라져 빛을 내려 보내는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갈라진 잎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다. 언젠가 질서를 잡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은 버리는 게 좋고, 온전히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름다운 순간일 것이다.

생강나무는 나뭇잎을 비비거나 가지를 꺾으면 외떡잎식물 여러해살이 풀인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나무이고 하나는 풀이다. 그래도 둘 다 정유(精油) 성분인 펠란드렌과 유데스몰이 들어 있어 비슷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늦가을 겨울눈을 자르면 잎과 꽃을 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애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생강 냄새가 맡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생강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살짝 꺾어도 새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미 아는 거 탐구심은 버리고, 소원 인연대와 포대화상 앞에서 약사여래대불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연꽃 위에 앉은 부처 왼손에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지장보살의 약함이 들려 있고, 오른손에는 보주(여의주)가 엄지와 중지 사이에서 중생의 소원을 향해 구를 것 같다. 소원을 빌다 힘들면 걸음을 옮겨 약숫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또 빌고 빌면 그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려시대 절터로 전해지는 자리에 1932년 법성사로 중창이 된 뒤 1995년 약천사로 개명을 했다는 넉넉한 사찰, 불자가 아니어도 심학산을 찾는 이들은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 학이 찾아들었다는 산세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일 것 같은 경내를 돌아 파주 땅을 내려다본다.

"싯다르타 앞에는 한 목표, 오직 하나뿐이 목표가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것을 비우는 일이었다.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소원으로부터 벗어나고, 꿈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쁨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비우는 일이었다."

헤세의 〈싯다르타〉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도 겨울 나는 생강나무처럼 때가 되면 스스로 피어날 비밀 소원 하나 손에 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무는 하늘로 끝나가는 가을바람이 올라가고 있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㉒ 안도현의 '공양'

세상만물 공물 아닌 것이 없구나

〈供物〉

공양/ 안도현

싸리꽃을 애무하는 산(山)벌의 날갯짓소리
일곱 근
몰래 숨어 퍼뜨리는 칡꽃 향기 육십 평
꽃잎 열기 이틀 전 백도라지 줄기의 슬픈 미동(微動) 두 치 반
외딴집 양철지붕을 두드리는 소낙비의 오랏줄 칠만구천 발
한 차례 숨죽였다가 다시 우는 매미울음 서른 되

–안도현 시집, 〈간절하게 참 철없이〉 창비, 2008–

아, 그렇구나. 세상만물이 공물(供物) 아닌 것이 없구나. '산(山)벌의 날갯짓소리', '칡꽃 향기', '백도라지 줄기의 슬픈 미동(微動)', '소낙비의 오랏줄', '매미울음'. 우주에게, 신령에게, 부처님에게, 대자연에게, 어르신에게, 공양 못 올릴 것이 없구나. '근', '평', '치', '발', '되'. 계량화하니 더 실감나구나. 구체적이어서 더 오붓하구나.

부처님 시대 최고의 의사, 부처님의 주치의 지바카는 말했다지. "세상에 약(藥)으로 쓸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세상 모든 것이 약이고 약재"라고.

그러고 보니, 그동안 우리는 '공기 만이천 근'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구나. '물 스물한 평', '바람 스물네 치 반', '햇살 오천 발', '구름 서른닷 되'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살았구나. 자연이, 세상만물이 우리에게 올리는 공물을, 공양을 너무 함부로 소비하고 살았구나.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필자가 중[僧]이 되려고 처음 산문(山門)에 들던 날, 밥 먹기 전에 밥상머리에서 두 손을 모두고 사형(師兄)이 읊조리던 말이 다시금, 새삼, 깊게, 떠오르는구나.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 하여/ 사회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도현 시인은 왜 이 대자연의 공물들을 근, 평, 치, 발, 되로 계량화해 놓았을까. 가시화해 놓았을까.

어리석은 우리들이, 무명(無明)의 우리들이 '산(山)벌의 날갯짓소리'가 공물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 '칡꽃 향기'는 공양물이 아니라고 우길까 봐,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우매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우문우답(愚問愚答) 하나 더. 안도현 시인이 세상에 바치는 이 공물들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물질일까, 마음일까. 아니면, 이 둘 다일까. 문득, 생각나는 어느 선사의 '할' 한 방.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고,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다."

맞다.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1+1'이지만 '2'가 아니라 '1'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 단 한 푼이라도 물질에 기울면 그 마음은 '49.999'가 아니라 '0'이 되어버린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 한 푼이라도 물질을 가벼이 여기면 그 마음은 '100'이 아니라 '0'(공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안도현 시인은 부처님의 중도(中道)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량화(가시화)해 놓은 것이다.

이 시 속에 감춰진 비밀 하나 더. 윤회의 인드라망이다. 식물이 다시 '태어나기(윤회)' 위해서는 반드시 벌이 필요하고, 벌을 끌어들일(유혹할) 꽃향기가 필요하고, 꽃향기를 매달고 있을 (백도라지) 꽃줄기가 필요하고, 비(물)가 필요하다. 안도현 시인은 그것(윤회의 과정과 순서)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 시를 썼다. 안도현 시인의 천재적 계산(감각)과 불심(佛心)과 반야(혜안)가 저절로 느껴진다. 아 참, 안도현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록할 업경대(業鏡臺)—매미 울음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이런 공양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안빈(安貧)속에서도 낙도(樂道)할까. 아니, 천하가 공물이고, 만물이 공양물이니 얼마나 풍성하고 편안할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이고득락법(離苦得樂法) 아닐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자리이타 이타자리(自利利他 利他自利)' 아닐까. 발고여락(拔苦與樂) 아닐까.

'공양'과 '공물'의 진폭과 지평을 이렇게 밝고 자상하고, 깊고 융숭하게 넓혀 놓은 안도현 시인에게 참으로 감사드린다. 이젠 우리도 모두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융숭하고 풍성한 '밥상(공양)'을 올 릴 수 있게 됐다. 중도와 윤회의 삶과 과정도 알게 되었다.

'팔만사천 근의 법문' 보다, 단 한 편의 시가 우리 육근(六根)을 더 빨리 정화시켜주고 밝게 해주는 것을 알았다.

사족 한 마디 더. 필자와 안도현 시인은 80년대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동고동락했다. 같이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노래도 목청껏 부르고 울분도 같이 토했다. 안도현 시인의 번뜩이는 천재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이렇게 '공양'을 '공양' 올려준 안도현 시인에게 필자도 '공양'을 올려야겠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심장·간질환 발병 한달…
생사기로에 선 미얀마 청년

미얀마에서 온 묘민우씨 올해 8월부터 프레스공장에서 근무
심장 수술에 신장기능 50%남아 약물 치료…병원비만 1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